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세대간 변화와 불평등의 추이」 분석결과

	.
	783-5173/3775-0696
	2003. 2. 18()
	3

- 자녀의 교육적 성공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를 교육계층화 혹은 교육불평등도라고 할 때 한국 사회는 지난 40-50여년간 급속한 경제발전과 교육시스템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층간 교육불평등의 정도가 완화되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강화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국의 대표표본 가구 5000가구와 그 가구원(약 1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998년 이후 2001년까지 매년 동일한 가구와 가구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한국노동패널(KLIPS: www.kli.re.kr/klips) 조사자료의 분석결과에 의한 것임

교육불평등도의 변화추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즉, 부모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 등)에 따라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확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교로의 진학확률 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의 각 연령세대별로 개인의 교육적 성취 수준을 정밀한 통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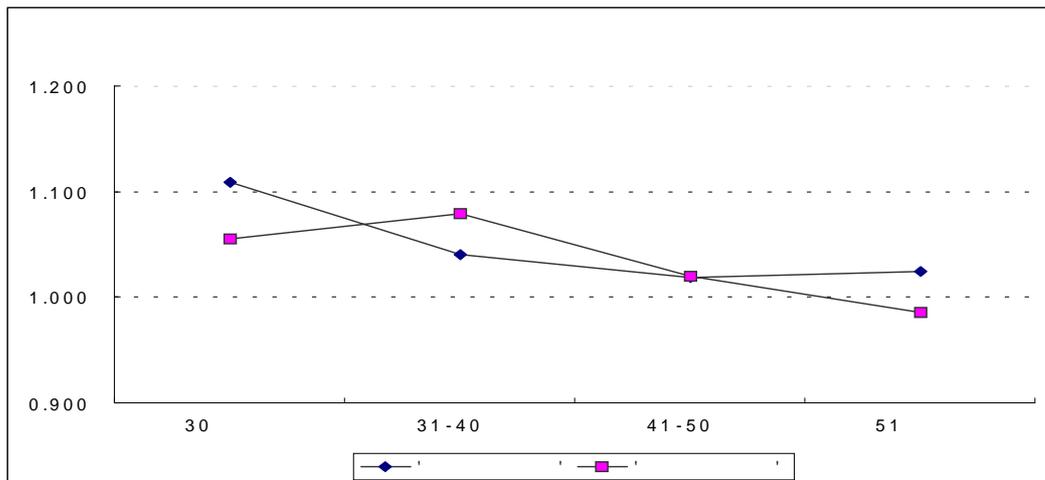
분석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7년 정도 차이가 날 경우(즉 대학교졸업 대비 중학교졸업의 경우) 자녀의 진학확률은, 연령대(20대, 30대, 40대, 50대 등)에 따라서,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는 2-3배, 대학진학단계에서는 약 1.5배 정도 높아지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는 3-5배, 대학진학단계에서는 2-3배 정도 자녀의 교육적 성공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분석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교육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은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학진학단계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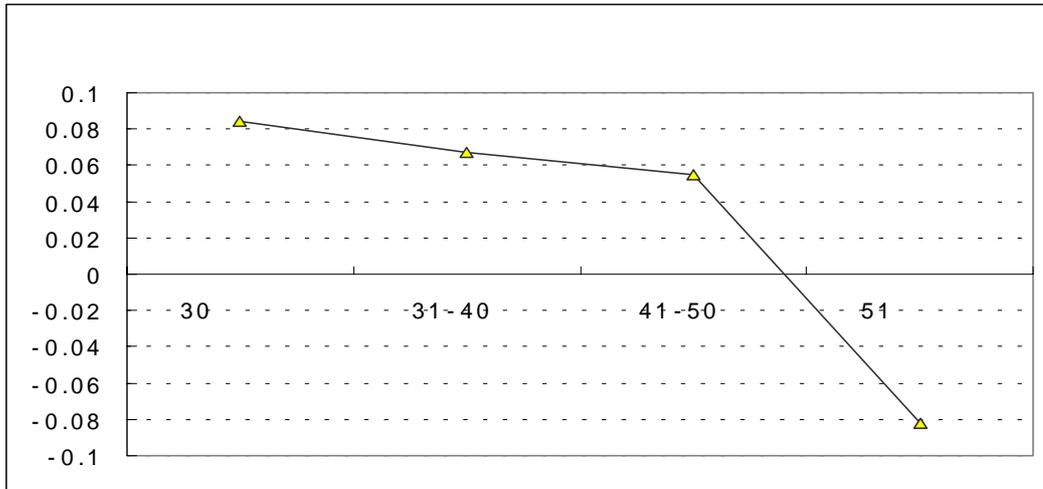
아울러 한국사회에서의 교육계층화의 장기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고연령 세대에

서 최근 연령세대로 내려오면서 출신가족배경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의 정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것으로 분석됨. 즉, 중학교 의무교육화와 대학교육 기회의 양적인 팽창 등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진학경로 (즉 고등학교 진학의 경우 실업계 대신 인문계; 대학진학의 경우 전문대학 대신 일반대학으로의 진학)를 중심으로 하는 질적인 차원에서의 교육기회불평등 정도는 최근에 오면서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어 사회계층에 따른 새로운 교육불평등 체계가 구조화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경우 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할 경우 실업계 대신 인문계로 진학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최근 세대에 이르러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할 경우 전문대보다는 4년제 일반대학으로 진학할 확률에 대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2001년) 분석결과



※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2001년) 분석결과

이러한 연구분석결과는 지난 4-50년간 공교육 제도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층간 교육기회의 양과 질에 있어서 불평등 구조가 지속되어 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단계 모두에서 진학경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질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불평등체계가 구조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이러한 결과는 교육기회의 급격한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대학진학) 단계에서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 및 교육비용의 과도한 가계경제 의존도, 자녀의 교육적 성공에 대한 과도한 사교육비 투자경쟁 등이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됨

가

	.
	02)782-0141 / 02)784-7405
	2

가

- ,

-

-

-

가 , 가 ,

- 가 가 가

- 가 가

- 가 가

가 (signal)

:

-

1998 ~ 2001 55 ~ 60% 가 29 ~ 37% (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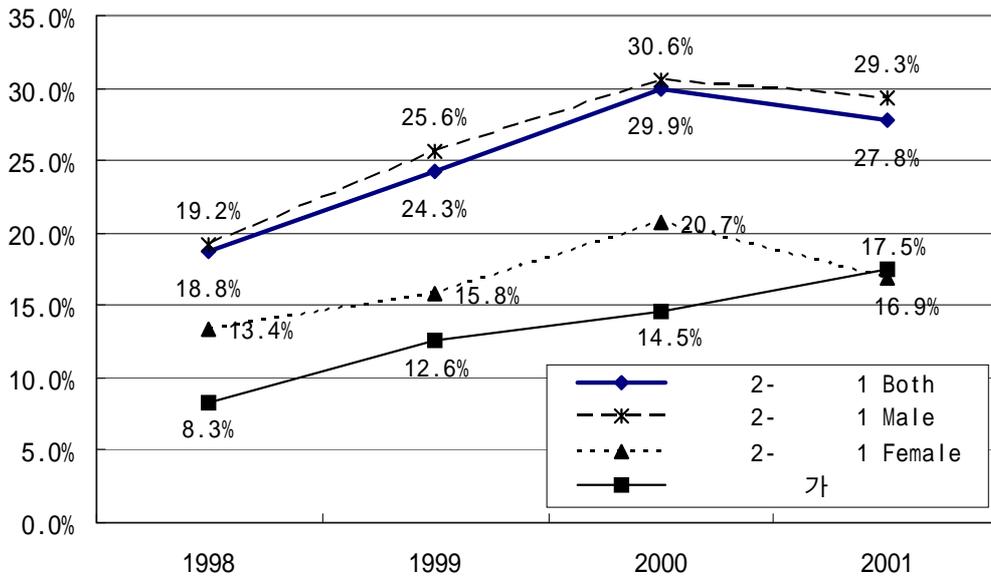
<표 1> 프로빗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이론적 취업확률

(단위: %)

	비장애인			장애인					
	전체	남성	여성	1			취업확률2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998	46.1	64.0	30.5	36.2	46.9	16.5	55.0	66.1	29.9
1999	53.2	72.1	36.1	36.5	46.2	18.3	60.8	71.9	34.2
2000	52.4	71.2	35.3	29.7	40.9	11.8	59.6	71.5	32.5
2001	53.1	71.6	35.6	28.5	41.3	10.3	56.4	70.6	27.1

주: 비장애인 취업확률 - 평균적인 비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취업할 확률
 장애인 취업확률1 - 평균적인 장애인이 장애인노동시장에서 취업할 확률
 장애인 취업확률2 - 장애인노동시장이 비장애인노동시장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있다면
 평균적인 장애인이 갖게 될 가상적 취업확률

[그림 2] 프로빗모형으로 추정된 장애인 취업기회의 불평등도



주: 장애인 취업확률2와 장애인 취업확률1의 차이로 계산됨.

- 가 가

4
(1)

- 가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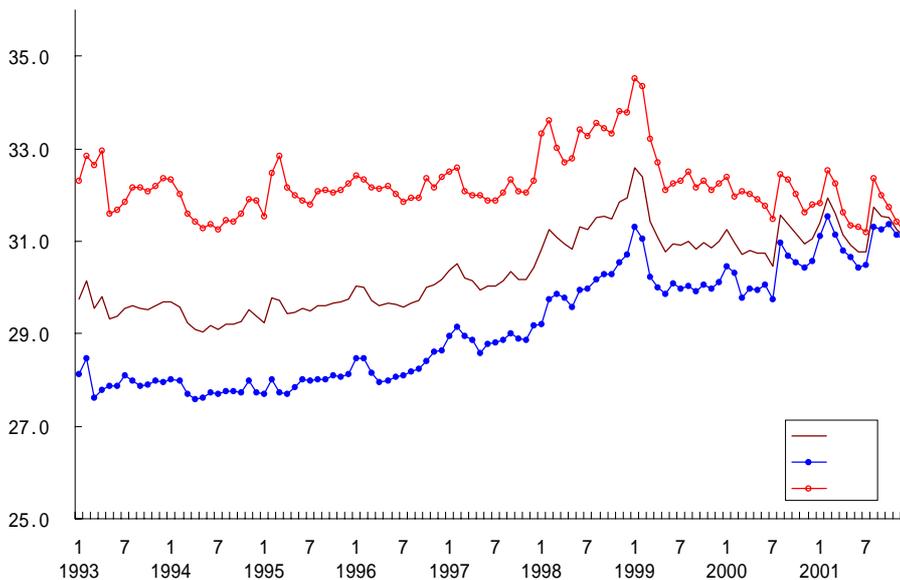
가
- 가
- 가
가
disadvantage
advantage

자영업 지속기간의 결정요인

	.
	02)785-1802/ 019-628-2241
	2

- 전체 취업자 중 1/3 이상이 자영업에 종사
 - 2001년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7.6%
 - 중장기 자영업 비중은 전반적 상승추세이며 경제위기 중 일시적으로 급상승
 - 특히 남성의 경우 급상승 추세를 보여 여성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수준

[그림] 취업자 중 자영업의 비중 (비농 전산업)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자영업에 관한 국내의 연구경향은 자영업 선택에 초점.
 - 자영업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는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
 - 국내의 자영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자영업의 선택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자영업의 성장 또는 성패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

음.

- 최근의 몇몇 국내 연구들은 자영업의 성장과 관련하여 자영업 지속기간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여 자영업 지속기간을 보고하였음.

※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자영업 지속기간이 평균 17~26개월인 반면 「여성의 취업실태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 여성 자영업의 지속기간은 109개월로 나타나 자료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자영업 지속기간은 평균 13년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취업의 성격을 띠고 있음.

- 농림어업을 제외할 경우에도 10년을 넘는 장기간 지속
- 여성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남성에 비해 다소 길게 나타남.
- 업종별 지속기간을 보면, 농림어업, 제조업에서 가장 길고 음식숙박업에서는 짧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진입과 퇴장이 빈번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성별 업종별 자영업의 지속기간 (단위: 개월)

	전체	남성	여성	농림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통신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 비스업
지속 기간	155	148	164	348	210	118	116	61	122	93	92

○ 경제위기 직후 한 해 동안에 자영업표본의 약 29%가 자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나는 바 경기변동이 자영업의 지속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자영업에 진입할 당시의 연령이 자영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보면, 창업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반면 임금근로의 가능성이 높은 저연령층에서는 자영업을 그만 둘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반면 임금근로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고연령층에서는 자영업을 지속할 유인이 강함.

※ 이는 자영업이 고령화사회에서 취업의 좋은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

-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연간매출액 또는 자영업소득)가 높을수록 자영업을 지속하는 반면 정보부족, 자금부족 및 경험부족은 자영업을 그만둘 확률을 높임.

※ 정보 및 자금 등 측면에서의 자영업 창업지원은 직·간접적으로 자영업의 지속성을 높여 고령화사회에서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

○ 훈련은 자영업의 지속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특히 공공직업훈련이 미치는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바 이는 창업지원에서 컨설팅의 중요성을 시사

	02)782-0141(326)
	3

I. (underutilization)

- 가 20 ~ 30
-
-
-
- 가 가
- 가
- 'M'
-
-

II.

- 8.6
- 12.1 ,
- 6.3 , 5.5

- 가 3 가

(12.1) 1/4 .

- 3.6

- 가 .

- 14.5

4.2 가 .

.

.

- 가

- 2.1 가 .

- , 가 ,

가

.

가 가

2 .

- 가 가 .

- 가

.

가

- 가

가 가 .

- 가

.

고연령자의 임금과 취업형태

	02)784-9339
	3

- 2002 7.8%

4.0% , 36.9%

가 가

- , 50 • 가 ,

.

40

.

(1).

- 1980 가

.

- , 1990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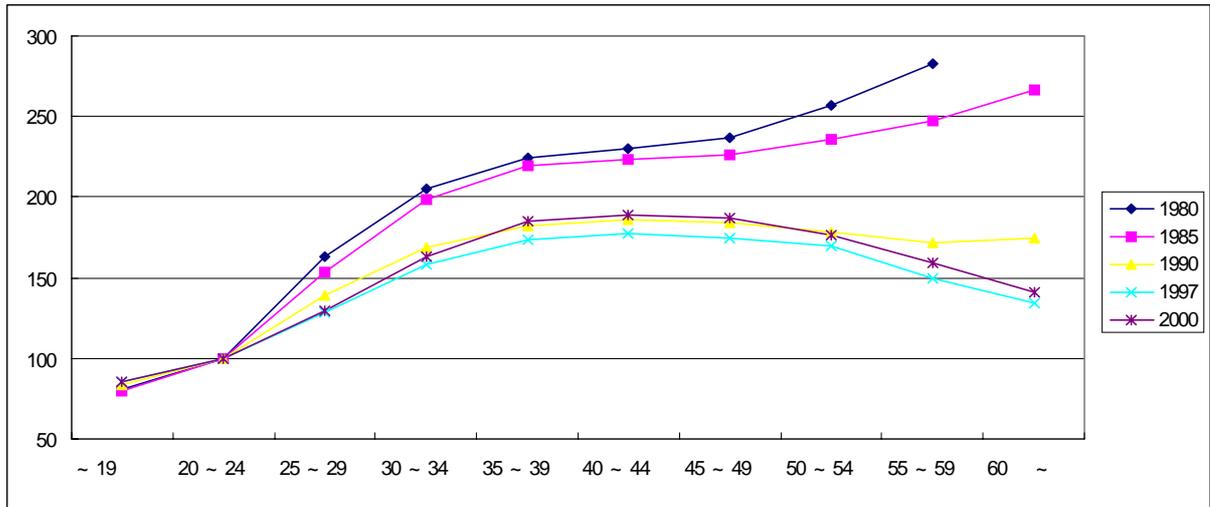
가 ,

가

.

- ,
,
.
- 1990 1997 . 1990
가
가
1990
,
.
40
- 가 가
- .
- ,
.
- 가 .

[그림 1] 연령계층별 임금수준의 변화 (월급여총액, 20~24세=100)



자료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노동부 홈페이지 Labor SIS)

가

< 1 >

		247	1	47	94	91	14
		(100.0)	(0.4)	(19.0)	(38.1)	(36.8)	(5.7)
/		787	0	95	363	288	41
		(100.0)	(0.0)	(12.1)	(46.1)	(36.6)	(5.2)
		247	6	85	111	42	3
		(100.0)	(2.4)	(34.4)	(44.9)	(17.0)	(1.2)
		787	3	224	415	129	16
		(100.0)	(0.4)	(28.5)	(52.7)	(16.4)	(2.0)
		246	4	104	106	28	4
		(100.0)	(1.6)	(42.3)	(43.1)	(11.4)	(1.6)
		787	9	297	389	85	7
		(100.0)	(1.1)	(37.7)	(49.4)	(10.8)	(0.9)
		246	2	92	114	32	6
		(100.0)	(0.8)	(37.4)	(46.3)	(13.0)	(2.4)
		787	6	245	386	136	14
		(100.0)	(0.8)	(31.1)	(49.0)	(17.3)	(1.8)
		246	3	75	98	60	10
		(100.0)	(1.2)	(30.5)	(39.8)	(24.4)	(4.1)
		787	1	216	363	187	20
		(100.0)	(0.1)	(27.4)	(46.1)	(23.8)	(2.5)
		246	5	68	108	56	9
		(100.0)	(2.0)	(27.6)	(43.9)	(22.8)	(3.7)
가		786	7	206	412	143	18
		(100.0)	(0.9)	(26.2)	(52.4)	(18.2)	(2.3)
		245	7	108	111	17	2
		(100.0)	(2.9)	(44.1)	(45.3)	(6.9)	(0.8)
		787	12	300	435	36	4
		(100.0)	(1.5)	(38.1)	(55.3)	(4.6)	(0.5)
		222	1	50	143	21	7
		(100.0)	(0.5)	(22.5)	(64.4)	(9.5)	(0.3)
		714	2	147	458	97	10
		(100.0)	(0.3)	(20.6)	(64.1)	(13.6)	(1.4)
		223	2	44	113	53	11
		(100.0)	(0.9)	(19.7)	(50.7)	(23.8)	(4.9)
		715	1	116	407	157	34
		(100.0)	(0.1)	(16.2)	(56.9)	(22.0)	(4.8)
		246	2	77	128	35	4
		(100.0)	(0.8)	(31.3)	(52.0)	(14.2)	(1.6)
		786	1	196	474	109	6
		(100.0)	(0.1)	(24.9)	(60.3)	(13.9)	(0.8)

: KLIPS 3

가 , .
- 가
- 가 .
가
가 ,
가 .